

2016년 12월 14일, 표선면 가시리 안인순씨 댁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안인순(여, 1935년생, 표선면 가시리)

제보자2: 정덕재(남, 표선면 가시리)

[제보자1] 가단 보난 도체비에 홀려네 혼이 나가부난 우리가 잇단 보난, 우리 저 가시리 왕 살아난 하르방이주만은 뜻게 하르방, 밤이 뒤지. 게난이 밤이 뒤지고기 쟁거 들령 다니지 말렌 허주게. 그거 아전에 뚫신디 그 저 게구각시 송게구각시 그 사름신디가 그 뚫이난 아전 가다네.

[제보자2] 뒤지고기.

[제보자1] 쟁거, 이 저 이딜 가야 텔 건디 영아릴 간 거라. 고기 아전. 간 막 뚫을 쫓아가 네. 뚫신디레

“마, 이 뒤지고기 아전 오고렌.”

헨. 경 골아동 보난에 뚫도 엊고 영아리에 가낫젠 그때 속못 그런 건.

[조사자] 다시 잘 골아봅서. 뭐마씨? 어떻마씨? 게난 하르방이 쟁뒈지고기를 들령 뚫레 집에 가는데 원래 이쪽으로 갈 건디 영아리 쪽으로 반대로 간 거라마씨?

[제보자2] 영아리는 반대, 한라산 쪽인데.

[조사자] 그 도체비가 뚫같이 생긴 거마씨?

[제보자1] 응. 뚫로 안 거주게.

[조사자] 게난 그 뚫한테 야. 나 뒤지고기 아전 왓덴 허난

[제보자1] 엊어져 불언. 엊어져 비언 하르방은 영아리.

[제보자2] 영아리 여기서 여기서 혼 칠킬로 가야 하는데.

[조사자] 칠킬로면 막 먼데 아니꽈?

[제보자2] 막 멀지. 한참 가야지. 한참. 칠킬로.

[제보자1] 요즘 골으민 걸영 상상도 못허지. (중략) 그 하르방 그루후제 오래 살지 못행 죽구. 뚫도 죽구. 뚫도 짚을 때 그냥.

[조사자] 무사마씨?

[제보자1] 아프난 죽었주게. 옛날에덜은 이 헛게, 헛게영도 허죽. 도체비영도 하곡. 헛게 만나나민 삼 년이나 살지 못헌덴 허죽. 죽어, 벵 들엉. 홀려그네 혼이 나가불어, 게난 누게 도체비나 헛게 봐저 허민

“아이고 그 사람 오래 못살켜.”

- 핵심어 : 표선면 가시리, 도체비, 뒤지고기, 뜻게, 영아리, 하르방